다락방 모임 나눔지 (9/6 주간)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창 14:1-24)

일상 나눔	**한 주간의 삶을 나누며 서로의 안부를 물어 보세요.**
찬송 하기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본문 읽기	**창세기 14:1-24**

1. 형제를 지키는 책임을 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오늘 본문은 혼란스럽던 국제 정세를 배경으로 합니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강력한 4개 국가의 왕들과 가나안의 5개 도시국가 왕들 간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반란을 일으킨 가나안 왕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메소포타미아 왕들이 내려와서 싯딤 골짜기에서 맞부딪칩니다. 하지만 가나안 왕들은 제대로 싸우지도 않고, 백성을 버리고 줄행랑을 칩니다. 소돔에 살던 롯은 포로로 잡혀가는 신세가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아브람은 주저 없이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데리고 메소포타미아 왕들을 추격합니다. 가나안 다섯 왕들이 힘 한번 못 쓰고 도망친 원정군을 겨우 318명을 데리고 추격해서 야간 작전을 펼쳐서 격파합니다. 그리고 롯과 빼앗긴 모든 재물과 사람들을 다 찾아옵니다. 평화를 위해서 조카에게 기꺼이 땅을 양보하던 아브람이, 형제를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 걸고 싸워 이기는 탁월한 전사로 돌변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수많은 왕들의 이름이 나열됩니다. 하지만 최후 승리자인 아브람은 '히브리 사람'이라 불립니다. 1) 어원적으로 '히브리'는 (셈의 자손인) 에벨에서 나왔습니다(창 10:21), 아브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 가는 셈의 합법적 후손이라는 뉘앙스입니다. 2) 의미상으로 '히브리'는 '강을 건너온 사람'이란 의미입니다. 빼앗는 왕들과 도망가는 왕들 사이에서 진짜 왕 같은 사람은 오직 약속의 후손 아브람입니다. 무명이지만 왕적 존재로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정체성입니다!

아브람이 피스메이커에서 용사로 돌변한 동기는 가족을 구하려는 책임감, 유대감입니다. 형제를 죽여 놓고도 '내가 형제를 지키는 사람입니까?' 발뺌하던 가인과 대조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혈관에는 '형제를 지키는 자'라는 아브람의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아브람은 '형제를 지키는' 진정한 왕적 존재였습니다. 318명 용사들이 승리한 동력은 아브람의 집에서, 약속의 하나님 전능자 여호와 신앙으로 '길러지고 훈련된' 이들입니다. 이런 신앙은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앙을 배우고, 훈련받고, 후대에 전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형제를 지키는' 왕적 존재로서 세상을 복되게 하는 통로가 되기 바랍니다.

2. 평화의 왕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

아브람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그를 영접하는 두 명의 왕이 나옵니다. 먼저 아브람을 맞이한 사람은 살렘 왕 멜기세덱입니다. 멜기세덱은 평화의 도시(예루살렘)를 다스리는 의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는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람을 영접하며 축복합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을 통해 아브람에게 승리를 주신 분이 누구신지가 드러납니다. 아브람은 멜기세덱에게 전리품의 10분의 1을 바침으로,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분이심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또 한 사람의 왕이 등장합니다. 바로 소돔 왕입니다. 그는 전쟁터에서 싸우지도 않고 자기 백성을 버리고 도망간 자입니다. 멜기세덱은 아브람에게 아무런 빚도 없었지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람을 영접하고 그를 축복했습니다. 하지만 소돔 왕은 아브람에게 큰 빚을 졌음에도 빈손으로 그를 맞이하고, 자기가 승리의 주역인 듯 '전리품은 당신이 가지라'며 생색을 냅니다. 아브람은 그런 그에게 일갈하며, 자신의 권리인 전리품들을 포기합니다(22-23절). 아브람은 멜기세덱에게 축복을 받은 그대로, 천지의 주재시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상 왕을 꾸짖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입니다.

아브람과 멜기세덱의 관계는 신약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비유하는 모티브가 됩니다(히 5:10, 6:20, 7:1-3). 그리스도는 멜기세덱처럼 의와 평화의 왕이십니다.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로 아브람을 영접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우리에게 베푸시며, 천지의 주재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아브람은 '형제를 지키는 왕' 같은 존재로 세상을 이겼지만, 정작 자신이 왕이 되지는 않습니다. 도리어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 높이며, 의와 평화의 왕인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습니다. 오늘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섬기고 있습니까? 자기 자신입니까? 허세를 떨며 빈손으로 우리를 맞이하는 오만한 세상 왕들입니까? 아니면 겸손히 떡과 포도주를 차려 주시며 우리를 맞이해 주시는 의와 평화의 왕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오늘 전쟁터에서 아브람이 열강의 왕들을 물리친 외적 승리도 대단하지만, 더욱 대단한 것은 승리 후에 의와 평화의 왕에게 전리품을 바치고 그의 축복을 받고, 세상 왕의 유혹을 물리친 내적 승리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평화의 왕을 섬기며, 하나님의 복을 받아 살아갑니다. 성도는 그 겉모습이 어떠하든지 결코 세상 앞에 초라하지 않고, 세상의 외적인 공격과 내적인 유혹을 이깁니다. 우리와 자녀들이 아브람과 318명 용사들처럼 담대하게 세상을 이길 뿐 아니라, 세상의 유혹을 이기는 진정한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눔 포인트

1. 아브람의 조카 롯에게 어떤 위기가 닥칩니까?(11-12절) 그때 아브람은 어떻게 합니까?(14-16절)
이를 통해 우리가 배울 점이 무엇입니까?

11. 네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12.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람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 14.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삼백십팔 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15.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16.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2. 아브람의 318명 용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14절)
달아나는 소돔/고모라 왕과, 빼앗는 북방왕들 사이에서 아브람이 왜 돋보입니까?

14.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삼백십팔 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3. 아브람을 맞이하고 축복한 멜기세덱은 어떤 왕입니까?(18-20절)
멜기세덱의 축복을 받고 아브람은 소돔 왕의 제안을 어떻게 거절합니까?(22-24절)

18.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19. 그가 아브람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람에게 복을 주옵소서 20.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 22. 아브람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재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23. 네 말이 내가 아브람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라기나 들메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24.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4. 아브람이 세상을 이긴 승리의 비결이 무엇입니까?(14절, 20절) 그것이 오늘 내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14. 아브람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삼백십팔 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 20. 너희 대적을 네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람이 그 얻은 것에서 십분의 일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합심 기도	**말씀을 기억하며 / 후원 선교사님과 미자립교회를 위해 / 다락방과 교회를 위해**
모임 마무리	**광고 / 찬송가 357장, "주 믿는 사람 일어나" / 주기도문**